



김봉환 질병칼럼

# 가성광견병— 올것이 왔는가?



김 봉 환  
(경북대 교수)

최근에 가성광견병(Pseudorabies)이라고 불리는 무서운 돼지 전염병이 경남 양산의 어느 양돈장에서 발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때까지 없었던 병이 갑자기 어디서 왔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양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걱정이 대단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근 양산지방과 김해양돈단지에서 출하되는 600 여두의 돼지 혈청검사 결과 모두가 가성광견병 음성반응을 나타내어 방역당국에서는 일단은 전국적으로 만연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안도의 숨을 돌리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농장에 어떻게 이 병이 발생하게 되었느냐 하는 의문점은 현재까진 해결의 실마리가 아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굴지의 6개 종돈장에서 돼지를 입식하여 밤마다 돼지꿈을 꾸면서 천신만고 끝에 800

여 두의 알찬 돼지농장으로 키워왔으나 뜻밖에도 모든 양돈인들이 두려워하는 가성광견병 난리를 당한 농장주의 실의가 어떠했겠느냐를 생각하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불행을 당한 이 농장에 가성광견병 바이러스가 잠입한 경로는 이때까지의 이병의 발생상황으로 보아 잠복감염돈이나 감염회복돈 또는 지속감염돈의 입식과 더불어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감쪽같이 들어왔으리라고 보는게 옳을 것 같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이 병의 근원은 이 농장에 종돈을 분양한 6개 종돈장으로 우선은 압축시킬 수 있다. 이들 종돈장에 대한 추적조사에서 양성반응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어느 한 농장에서라도 양성돈이 나타난다면 큰 일이다. 큰 종돈장이라면 전국 방방곡곡에 돼지를 보냈을 것이 틀림없으니 추적조사 대상이 크게 확대되리라는 것은 알고도 남음이 있다. 때문에 아예 종돈장은 모두 검사대상에 포함시켜 일제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이 병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지름길이 아닐런지 모르겠다.

오비이락(鳥飛梨落)격으로 근자에 도입된 대만산 종돈이 가성광견병 양성으로 판명되어 살처분되었다는 소문이고 보면, 가성광견병의 혈청검사 방법이 확립되기 전에도 이병이 발생되고 있는 여러나라에서 종돈이 도입되었으므로 수입종돈에 의해 상당히 오래전에 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가성광견병이 처음 확인된 동유럽국가를 위시한 유럽제국과 북미주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병의 발생은 돼지사육의 집약화 및 대단위 사육방법의 보편화와 더불어 두드러지게 되었으며, 돼지콜레라의 방역이 철저해져서 콜레라 발생이 근절되거나 격감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 병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어 가성광견병의 발생이 꼬리잡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와같은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닐런지?

실제로 당해보진 않았지만 관심있는 양돈인들은 이 병이 아주 무서운—양돈기반을 송두리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질병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 것 같다.

자돈이 설사만 해도 가슴이 덜렁하고, 모돈이나 비육돈이 몇마리 폐사해도 가성광견병 공포에 걸리는 모양이다. 사실상 방역당국에서는 이 병의 국내잠입을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내 발생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덕분에 10여년전에 대만에 가성광견병이 처음 확인되었을 때에도, 6년전에 일본에 가성광견병 소동이 났을 때도 우리는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기어코 올 것이 와서 우리에게도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가 보다.

이번 「양산사건」에 신속히 대처한 방역당국의 일사불란한 조치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우리 현실에서는 지극히 어려운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한 점이나 간이진단키트를 개발하여 사전에 대비한 가축위생연구소 연구진들의 연구노력의 결실은 우리나라 가축방역사에 길이 남을 일로 손꼽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이번 「양산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양돈업계에 하나의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첫째,** 건강하고 우량한 종돈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 종돈장의 위생등급제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급성 전염병은 물론, 만성소모성질병의 발생이 없는 위생적인 종돈장에서 생산공급되는 우량종돈을 육돈 생산자들이 마음 놓고 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면 결과적으로 돼지질병의 발생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둘째,** 위생적인 돈육을 생산·공급하기 위해서 생산자단체에서는 선진국에서처럼 「돼지위

생계획(Pig Health Scheme)」같은 것을 성안하여 전반적으로 돼지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돈육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호응을 받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돈육의 해외 진출도 활성화 될 것이다.

최근에 여러차례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많이 소개된 바와같이 임신중인 모돈이 가성광견병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유사산, 미이라, 수태불능 등 번식장애가 많이 생기며(심한 경우는 50%에 육박) 분만전후에 감염되면 자돈에 전파되어 감염자돈은 고열, 설사, 기침, 유연, 신경증상 등을 나타내다가 대부분 폐사하게 된다. 이유자돈도 이 병에 걸리지만 폐사율은 나이가 들수록 적어진다. 큰 돼지는 감염되더라도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폐사하는 것은 아주 드물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철저히 했는데도 포유자돈이 고열, 설사, 기침, 신경증상 등을 나타내면서 많이 죽으면 일단은 이 병을 의심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서두르는 것이 좋다. 가성광견병이 처음 발생하는 농장에서는 면역학적으로 무방비상태인 돼지에 발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뚜렷한 임상증세를 나타내면서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번 이 병이 지나간 농장, 특히 연중 분만과 출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큰 농장에서는 만성화되어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

아직까지 이 병의 진원지와 발생상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급하게 백신접종을 서두르는 것은 쥐잡기 위해 독을 깨는 격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양돈인 여러분께서는 돼지입식을 믿을만한 곳에서 하는 슬기를 되살리고 소독이나 기타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줄로 안다. \*